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채 로이아*

2011년부터 적용될 2009개정교육과정은 음악이 미술과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이면서 집중이수제의 폭과 수업시수 20%증감의 확대, 선택교과로서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 등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음악교과의 축소가 예상된다. 음악은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으로 입시과목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과목이다. 이러한 과목은 수업시수 20%증감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를 고정하여 운용하고 집중이수제는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음악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전문프로그램으로 학교현장에서 음악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 2009개정교육과정, 집중이수제, 음악교육, 음악교사

차 례

I. 들어가면서

II.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1. 2009 교육과정 자율화의 논의
2.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이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
3. 2009 개정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음악교사의 동향

III. 나가면서

* 한국교원대학원 대학원 음악교육과 박사과정

I. 들어가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과 한부모 가정,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등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심리적 불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서는 예술적 생명력을 지니고 창조적 경험의 바탕이 되는 음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한국은 입시 교육으로 방과후에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2008년 통계청의 조사(동아일보, 2008)에 의하면 중학생의 74.6%가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과외 등으로 방과후에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로 인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특기적성 중심의 활동이 소규모로 방과후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이마저도 2009년 학교자율화로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 후 활동은 축소되고 교과중심의 방과 후 활동이 대폭 늘어났다(신종만,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은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을 위한 정규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음악 수업을 순차적으로 배움으로서 청소년들이 음악적 경험과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심성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 교육과정 자율화의 수업시수 20%증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어 등 성취교과목의 수업시수를 늘여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로 입시과목과 관련되지 않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들은 소외되고 있다. 교육과정자율화의 시행초기와 교원수급의 문제를 감안하면 2010년에는 음악수업을 집중 이수하거나 수업시수를 감소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2011년에는 음악이 미술과 하나의 교과로 묶이면서 집중이수제의 폭과 수업시수 20%의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9년으로 줄어들므로 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로서 음악 수업이 이루어진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순회 교사, 부전공 상치 교사 등 교원 수급 문

제가 해결되면 음악교과의 축소와 음악교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된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단계에 따라 음악을 배움으로 음악적인 성장의 깊이를 가졌던 교과과정에서 2009 교육과정 자율화로 음악을 배우지 않는 학년이 생기고 음악 수업시수를 늘이는 학교보다는 줄이는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2009 교육과정 자율화가 도입됨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음악교과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확대된 내용의 2009개정교육과정이 2011년 학교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교과의 전문성을 지닌 교과전문가, 교사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함이 절실하다.

II.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음악교과의 영향 전망

1. 2009 교육과정 자율화의 논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이홍수, 1990, p. 203)으로 총론은 기본 방향과 교과별 시수배당을 담당하고 각론은 총론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과목별로 개정과 개발을 추진한다(소경희, 2005, p. 20).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사가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다름으로서 학생들이 학년별,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음악 개념과 능력을 제시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을 포함하여 교과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과별로 교과서, 수업 시수, 교사 수급 등 학교 행정에 대한 체계를 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교육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은 1955

년 제1차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준비기간을 거쳐 고시가 5년에서 10년 사이로 8번 개정되었다.¹⁾ 교육과정의 개정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일로서 충분한 연구기간과 준비과정, 심의, 토론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7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2009)에서 연구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1년만에 2009 개정교육과정이 황급히 고시되었다. 2010년부터 두개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맞물리어 시행됨으로서 학교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일부분을 2009 학교자율화의 ‘교육과정 자율화’로 2010년에 조속히 시행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자율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혼합된 적용으로 인한 시행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p. 15).

<표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차별 적용 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7 개정교육 과정	중학교	1학년 수학, 영어	2학년 영, 수 1학년 전체	3학년 영, 수 2학년 전체	3학년전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2학년 수학, 영어	3학년 수, 영 1학년 전체	2학년전체	3학년전체
교육과정 자율화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 학교		교육과정자율화	2009 개정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자율화는 2009년 6월 11일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학교장이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과기부, 2009, p. 2). 교육과정 자율화의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과기부, 2009).

1)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제3차 교육과정(1973-1981),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제5차 교육과정(1987-1991), 제6차 교육과정(1992-1998), 제7차 교육과정(1998-2006), 2007개정교육과정(2007-2008)

<표 2> 2009 교육과정 자율화

학년	2009교육과정자율화
초-고1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고1-고3	고교 1학년 교과의 이수 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 과목 이수 가능)
고2-3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 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고2-3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초1-고1	학교 재량으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 활동(136)과 특별 활동(68) 통합 운영
중1-고3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 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

교육과정 자율화의 연간 수업시수 20% 증감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성취 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과기부, 2009). 교육과정 자율화로 음악시간을 늘여서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프로그램의 수업이 가능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정규시간의 음악수업의 감소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은 학교자율화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입시위주의 학력경쟁에 대한 제도 보완 및 교육풍토 개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최만덕, 2009, p. 109).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전과목을 가르침으로서 과목의 시수를 학교단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유연함이 있다. 이러한 점은 감성을 키워야 하는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의 교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지과목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큰 우려가 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3-4학년 2010년 교육과정 계획서 분석' 자료에 보면 영어와 수학을 뺀 여섯 과목에서 수업시수가 줄었는데, 4학년에서 체육(4.05시간), 사회(2.44시간), 미술(2.2시간), 음악(1.98시간)의 시간이 줄었다(2009, 한겨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체능 교육을 위한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 영, 수 위주의 입시 교육이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되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중학교 206개교 가운데 국민 공통기본 교과 20%범위 내 증감을 적용한 학교 수는 총 136개교로 이 가운데 영어교과를 증배한 학교는 51개교, 수학 31개교, 과학 23개교, 국어 18개교 등 모두 123개교로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도구교과 중심으로 증배했다(2010, 최현민). 고등학교의 경우도 총 학교수 132개교 중 증감을 적용한 학교가 86개교이며 수학을 증배한 학교 24개교, 영어 21개교, 과학 11개교, 국사·사회 15개교이지만 음악, 미술, 도덕 교과를 증배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최현민, 2010).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늘려 수업하고 초등학교 역시 중·고등학교와 별반 다를게 없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초·중·고교의 교과과정 자율화 추진은 학교 현장의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뿐”, “특히 공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으로 사교육을 유발,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현민, 2010).

이처럼 주요교과목의 수업시수를 증배한 학교수가 많은 것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타 학교 또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수업을 증배해 운영하는데 우리 학교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교과 수업을 증배해 운영하면 타 학교에 비해 학력 수준이 떨어질 것이 우려돼 예체능 과목은 증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현민, 2010). 대다수의 학교현장에 예체능과목의 시수는 늘이지 않고 줄이려고 하는 입장을 전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의 뜻은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수업시수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학업부담으로 수업시수 20%를 감소, 증가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업시수 20%감소는 불가능하고, 증가 또는 증가하는 정도 만큼만 감소해야 하거나 기존의 교과 수업시수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실적 강요로 자율화의 이름이 무색하다.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화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여 일선학교의 성과를 등급화하였다. 서울 강남의 A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6월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특별히 수업 시수를 조정할 계획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시수 20% 증감과 집중이수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

라”는 지적 사항을 내려 보냈고 교과부는 “3월 중 실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혀 A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국어와 사회 과목 시수를 조금 늘리고 영어 시수를 줄였다(남윤서, 2010). 이러한 강요된 운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입시위주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음악을 비롯한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강제적인 수업시수 감소와 집중이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교육과정 자율화의 수업시수 20%증감 적용상황

	교육과정 자율화의 수업시수 20%의 증감
본래의 취지	1) 교육수요자의 요구 2)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한 전인교육강화 3) 학업성취도 강화
도입되는 교육현장의 상황	1) 교육과정 자율화이지만 수업시수 20% 증, 또는 수업시수 20% 증가하는 만큼 감소만 된다. 수업시수 20%감소, 수업시수 20%증가보다 감소의 폭이 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강요된 추진으로 기존의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2)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 시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강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사교육을 유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3) 입시과목은 아니지만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과목 시수가 적은 음악, 미술 등의 시수 감소로 인성교육이 어려워짐. 4)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화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여 무리하게 등급화하여 국, 영, 수 중심의 입시주의 교육이 강행됨.

성과 위주의 무리한 추진은 수업시수 감소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과목의 특성이 집중이수제와 맞지 않는 교과목의 선생님들,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적을 보고하는 교무부, 학교관리자분들과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갈등, 알력과 위화감이 학교 현장에서 조성되고 있다.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가 적고 입시와 관련없는 교과목은 수업시수 감소, 집중이수제 등의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교과목으로 전략하고 있다.

2.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이 음악교과에 미치는 영향

2007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 자율화에 이어서 2011년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3개의 교육과정의 동시 적용으로 혼란과 혼선,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하여 교육과정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지만 교육과정 자율화의 성과중심추진과정과 맥을 같이한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강요된 추진계획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적용된 교육과정 자율화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초전”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남윤서, 2010).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입시 주위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의 ‘틀’을 바꾼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교육의 ‘내용’을 바꾸기 위한 교과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윤주, 2009).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입시 교육을 위하여 수업시수, 교과목의 수, 교원수급 등의 행정상의 틀만을 우선적으로 무리하게 바꾸었음을 나타낸다. 개정 교육과정을 우선 고시부터하고 그 다음 세부 내용을 연구하겠다는 발상과, 6개월도 못되는 준비기간, 여론몰이 설문 조사 등 비정상적인 과정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민경훈, 2009, p. 2).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교육관련 집단 및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만덕, 2009, p. 109).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구상과 시안을 연구하는 과정은 교과전문가, 교수, 현장 교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교과부는 자문위의 발표안을 그대로 한국교육평가원에 넘겨서 구체화하도록 하면 평가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교과연구진들의 ‘입김’으로 개정 의제가 변질될 것으로 우려하여 총론 1차 시안을 만들 것을 연구팀에 의뢰하였다(홍후조, 2009, p. 48).

집중이수제는 학년, 학기 간 집중 이수를 통해 학년별 이수 교과 수를

줄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과기부, 2009, p. 6)는 것으로 주당 1~2 시간의 시수가 적은 교과에 적용하여 교과의 수를 줄이려는 취지이다. 집중이수제는 교과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 수, 수업 시수의 교과 운영의 틀을 우선적으로 바꾸었다.

노래를 부르고 악보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고 감상하는 것들의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의 개념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음악 행위를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이홍수, 1990, p. 163). 음악은 인지발달에 따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수업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꾸준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짧은 기간에 집중하여 몰아서 음악을 배우면 배우지 않는 시기가 생겨서 발달단계에 따른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 음악교육의 특성들을 무시한 집중이수제는 음악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민경훈, 2009, p. 20).

홍후조(2009)는 중등학교에서 6학기 내내 1-2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학생에게는 학습, 수업, 과제, 시험 부담만 초래할 뿐, 교과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없고 교육효과는 적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음악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교과의 특성에도 잘맞고 교육효과가 크다. 학생들에게 교과의 수를 줄이는 것이 결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교과 이상의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입시 경쟁으로 학업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음악은 입시과목이 아니며 평가의 방법과 체계가 바뀌어 감으로 학습 부담이 적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습부담에 대한 글을 인용하였다(정택희, 2007, p. 158).

예체능에 대한 부담 없다. 수업에 대한 부담도, 성적에 대한 부담도, 대학 가는 데 점수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안된다. 그리고 시험문제는 사전에 알려주시고 범위도 적어서 부담이 안된다(서울 소재S여고 학생)(p. 158).

<표 4> 2009 교육과정 자율화의 집중이수제 적용상황

	집중이수제
본래의 취지	1)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년·학기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게 되면 학습 효율성을 제고. 2)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

	집중이수제
도입되는 교육현장의 상황	1) 이수 교과 수를 줄이는 것이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습부담이 집중적으로 커지며 입시경쟁이 가중된다. 2)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인성·전인 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음악교과는 입시관련 교과목이 아니고 평가 체계도 3단계 평가로 바뀌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적은 편이다. 3) 교과의 특성과 잘 맞지 않음에도 수업시수가 작고 입시관련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음악교과에 대하여 집중이수제를 무리하게 추진함.

교육과정 자율화에서 일주일에 2시간이던 집중이수시간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음악과 미술이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이면서 일주일에 4시간으로 확대된다. 예술교과는 우선적으로 내용의 관련·연계보다는 교과군을 줄이기 위한 시수의 결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음악 136시간, 미술 136시간을 1년과, 2개학기에 걸쳐서 집중이수를 정하고 있다.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진학을 앞둔 중3학년은 예술교과의 수업을 배당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2시간은 적고 몰아야 하는 시수로 여겨 음악을 1년간 4시간을 배우도록 정하고 있다. 음악은 꾸준히 배워야 하는 교과로 4시간씩 1년을 배우는 것보다 2시간씩 2년을 배우는 것이 음악 내용, 학습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 사람이 햄버거만 계속 먹고, 피자만 계속 먹을 수 없듯이 영양이 적합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집중이수제로 짧게 몰아서 수업하고 나머지 기간에 입시위주 교육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꾸준한 감성과 인성을 키우는 것을 저해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내면적으로 다루는 교과이다. 따라서 음악적 개념과 능력을 학생 개인에게 잘 맞는 음악적 정서로 키우는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의 독자적인 특성을 경험하고 배우는 수업과 함께 음악을 중심으로 다른 예술, 타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탐색해보고 이해하는 것은 음악의 가치와 역할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과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서 연계적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소경희, 2005, p. 169). 음악이 미술이 교과군으로 묶여 하나의 교과로 다루는 것은 교사의 양성과정에 있는 대학에서부터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음악 교과는 음악의 특징적인 성향을 경험하고 배우는 독립된 교과로서 음악과 관련된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은 음악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표 5> 2011년 중학교 수업시수 20%증감과 집중이수제 예시

중학교	집중이수제 논의		1학년	2학년	3학년
음악 136 (주당 4시간) 20% 증감 시수 (109- 163)	교육과정자율화의 집 중이수가 일주일에 2 시간에서 음악과 미술 이 하나의 교과군이 되어 4시간으로 늘어 남. 배우는 기간은 1 년으로 짧아짐. 일주 일에 4시간에서 상대 적인 수업시수 감소가 우려됨. 집중이수제로 전출입학생의 수업결 론, 및 중복이 예상된다.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선택 하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 음악수업이 마지막임.	4시간		고등 학교 진학 으로 음악을 잘 다루지 않음.
		한학기는 배우지 않는 공 백이 생김. 대개 1명에서 두명의 음악 선생님에게 배움. 음악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한 학기는 수업을 맡을 수 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 이 생김.	4시간 (한학기)	4시간 (한학기)	
		2개학년에 걸쳐서 단계적 으로 배우는 것이 음악교 과에 적합함. 그러나 2시간 은 집중해야 하는 시수로 여겨 실재적으로 학교현장 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움.	2시간 (불가능)	2시간 (불가능)	

중학교 1학년에서 음악은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때 배운 음악선생님의 수업이 평생동안 마지막 수업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감상할때 중2, 중3, 고등학생일때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르며,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등 한국 가곡을 배우려면 중3, 고1 정도로 성장해야 성량에 맞는 음악으로 소화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음악을 배움으로 감성을 통한 인지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제재곡과 내용으로만 배움으로서 음악을 경험하는 데 한계가 된다. 중학교 1, 2학년 2개 학기에 4시간을 배우면 안 배우는 학기가 생기고 대개 한분의 음악선생님께 배우거나 간혹 두 명의 음악선생님께 배우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이 계신 주요

과목과는 달리 몇 분 안계신 음악선생님은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2010년까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을 필수적으로 배워서 최소 2명에서 4명의 음악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음악교과의 경우 성악, 작곡, 피아노, 국악 등 전공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음악선생님의 전공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음악분야와 음악성을 수업시간에 접할 수 있다.

2009년까지는 중학교 3년동안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수행평가로 실기 연습을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3년동안에는 6-12개 정도의 수행평가로 적어도 3개의 기악곡, 가창곡의 실기 연습을 하고 감상, 창작을 배울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에 폭넓고 다양한 악곡의 가창, 기악 등의 수행평가로 음악을 배우고 접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음악을 배우고 그 기간동안 부담되지 않게 음악을 즐기며 연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우면 음악을 배우는 기간이 1년동안 짧아지기 때문에 가창, 기악 등의 음악을 연습하고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배우고 실기 연습하는 악곡이 적어질 수 밖에 없으며 1년기간의 성장기에 따른 음악으로만 배우게 된다. 중학교에서 1년에 음악을 집중해서 배우는 것과 3년동안 배우는 것이 음악시수가 감소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을 배우지만, 음악을 배우는 양과 정도, 내용은 매우 다르고 차이가 큰 것이다. 음악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동안 음악과 관련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음악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집중이수제로 음악, 미술을 한 주에 4시간 수업한다면 학부모들에게 예능과목의 과도한 학습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교과군별 20% 축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신은희, 2009). 그렇게 되면 음악, 미술의 시수가 영어 등의 입시과목의 수업시수로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집중이수제와 20% 증감편성은 소수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더욱 줄여서 입시 교과목 수업시수 늘리기로 이어지며, 이는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을 만치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고사시키고 향후 선택과목으로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진다(신은희, 2009).

<표 6>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집중이수제 + 수업시수 증감 과정표(신은희, 2009)

				학부모 등 요구 발생농후		결과
학기당 8과목이내로	⇒	주당 4시간 + 2개 학기동안 집중이수	⇒	주당 과도한 학습	⇒	주당 3시간으로 축소
		(음악, 미술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1차 시안에서 배정된 수업시간수가 적은 교과목들은 학년 단위가 아니라 학년군 단위를 따라 이수 학기수를 줄여서 집중하도록 하였다(홍후조, 2009, p. 50에서 재인용). 그러나 수업시수가 적다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수제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교과에 적용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는 수업시수 20%증감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를 고정하여 운용하고 집중이수제는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적용해야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 주정부 문교부장관 회의에서 모든 주들이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주당 시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음악시수를 줄이지 않을 것에 동의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독일이 전인교육·감성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민경훈, 2007, p. 3).

과기부(2009)는 학생들의 예능교육을 위하여 중학교와 일반계고 가운데 예술·체육 교육과정을 특화해 가르치는 학교를 내년에 30여곳 지정하였다. 중학교 교과목의 20%, 고교는 30~40%를 예술·체육과정으로 이수하고 2~4개 학급에서 중점과정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홍희경, 2009). 예능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의 이러한 특화교육도 필요하고 일반 학생들의 꾸준한 음악교육도 중요하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은 음악교과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음악교육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2009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음악교육에 미칠 영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한 음악 교육의 전망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0학년→9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필수 이수율의 음악 수업이 없어짐으로 음악수업을 선택함으로써 음악 수업이 이루어짐. 음악교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10개 교과 → 7개교과군 조정. 음악→음악·미술교과(예술교과)	음악·미술이 하나의 교과로 수업시수가 합쳐짐으로 집중이수제, 수업시수 증감의 폭과 강도가 확대됨. 단기간의 집중의 강도가 커서 수업시수 감소가 우려됨.
학년군별·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제시 학년·학기 집중 이수 가능 블록타임제 운영은 3-4시간 연속수업진행	음악을 배우지 않는 학년·학기로 인하여 인지발달단계에 알맞은 음악의 지속적인 교육이 어려움. 입시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이 어려워짐. 한차시이상 연이은 음악수업은 활동중심의 음악교과와 맞지 않음.
교과군별로 수업시수 20%자율 편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음악교과의 수업시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음악·미술과목의 수업시수가 합쳐짐으로 수업시수 20%감소의 폭이 커질 수 있음.
2단계(p/f) 평가	3단계평가(2007개정교육과정)가 모든 학년에 도입되기 전에 2단계평가 도입. 입시과목의 학습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음악수업의 2단계 평가로 평가의 부담이 없어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소홀히 하며 집중도가 낮아지고 산만해지기 쉬운점이 예상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와 수업시수 증감은 입시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수업시수 적은 교과목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교육과정 자율화를 겪으면서 2011년 집중이수제와 수업시수 증감의 목표가 되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교사

들은 교과목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지 못한 채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수용당하고 있다. 대부분 단위학교는 성적으로 학교의 서열이 매겨짐으로써 성취도 과목의 수업시수를 늘여서 성적을 올려야 함으로 전인교육은 소외시킨채로 2009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다.

3. 2009 개정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한 음악교사의 동향

2001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1997~2007)은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음악교과를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11-12학년(고등학교 2-3 학년)의 '음악과 생활'을 선택하여 학습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음악 수업의 축소는 음악교사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음악교사의 입지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장근주, 2005, p. 11). 이에 대하여 천화연(2002)은 음악교과 선택제 등으로 인하여 음악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상실감을 감안하여 볼때 교사의 사회적 존경, 경제적 안정, 신분 보장,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사들은 주변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천화연, 2002, p. 63), 선행연구에서 음악교사로서의 만족감(김선옥, 1994; 장선희, 송은경, 2002)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음대, 사대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군제, 집중이수제, 수업시수 20% 증감, 고등학교에서의 선택교과(1~3학년) 등의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의 양상보다도 음악 교과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술교과군의 집중이수제에 의한 수업시수 감소, 선택교과로 인한 고등학교 음악 교육으로 음악교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음악과 미술이 교과군으로 합쳐지면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 입지가 축소됨으로써 음악교사의 상대적인 상실감과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직무불안은 다양한 정의로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어떤 규모의 상실을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선행연구들(Ashford et al., 1989; Greenhalgh & Rosenblatt, 1984; Rosenblatt & Ruvio, 1996)에서 채택하

고 있다(Kinnunen et al, 2000, p. 443에서 재인용). 이러한 운영방안에 불과한 집중이수제 때문에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교원인사 자율화계획 또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신은희, 2009). 이러한 변화로 음악교사는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순회근무가 일반화 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상담·진로 교사, 자습감독교사로 대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중학교에서 집중이수제로 1학년 1학기에 4시간, 2학년 2학기에 4시간 배울 경우 음악 교사가 담임을 맡을때의 한학기 수업이 없음으로 담임반 운영의 제약이 될 수 있다. 집중이수제로 음악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는 학년과 학급이 제한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담임교사로서의 역할도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담임업무를 포함한 행정 업무에서도 음악교사가 소외될 수 있다.

과기부(2009)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로 중·장기적으로 일부 위상 약화가 우려되는 교과와 교원들에게는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접 교과의 교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부전공 연수는 불어 등의 제 2외국어에 있어서 7차교육과정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박상주, 2001).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과목별 과원 교사 해소 및 소규모학교의 교과목 상치교사 해소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제2외국어는 영어, 기술은 가정, 가정은 기술, 공업계교과와 정보컴퓨터는 수학 과목으로 부전공 연수가 고시되었다(경기도교육청, 2010, pp. 1-2).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 홍후조(2009)는 중등학교의 복수자격화의 추진을 통한 교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 교과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고 하였다. 중등학교 교원들이 가장 잘 가르치는 과목과 두 번째로 잘 가르치는 과목의 복수자격화를 추진해야 정상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2009, 홍후조, p. 68). 중등학교 교사의 복수전공 과정은 교사의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저해하게 한다. 교사들에게 다른 교과의 복수전공을 유도함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이 분명하다. 부전공제도는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존감마저 훼손할 정도이다(2009, 신은희). 교사들의 복수전공은 교사가 되기 전 대학의 교사 양성에 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교사는 교직을 이수하고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년시절 내지는 청소년 시기부터 꾸준히 음악을 공부하였으며 음악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기도 한다. 음악교과의 축소로 전문성을 키우는 음악교사가 다른교과의 부전공연수를 받게 되거나 부전공취득을 위하여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해마다 대략적으로 11,000명의 새로운 음악교사의 자리가 필요하고 이에 비해 5,500명만이 새로운 음악 교육자의 직업을 가진다(Hill, 2003)고 하였다(Baker, 2007, p. 77에서 재인용). 많은 음악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직과 구인율로 음악교사로서의 힘든 여건과 어려움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교사가 이직을 막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교사의 근무여건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구가 활발하다. 음악교사에 있어서도 이직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많은 연구(Hamann & Daugherty, 1984; Heston et al., 1996; Krueger, 2000; Natale, 1993)에서 음악교사 감소에 기여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관리자 지지의 부족으로 나타났다(Baker, 2007, p. 78재인용). 이는 음악 교사의 유지와 관리지의 지지는 강한 관계가 있음(DeLorenz, 1992)를 나타냈다(Baker, 2007, p. 78에서 재인용). 관리자와 행정가들의 이해와 지지가 실재 음악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정책가, 산업 지도자, 학교 행정의 직원은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의 효율적인 이상들을 종종 나타내기 위해 학교체계를 창조하는 것을 담당한다(Schieb, 2006, p. 5). Hegarty(2003)는 미국의 몇몇 주들이 각각 학교를 위한 “투자 목록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취 시험 성적과 함께 보낸 교육을 비교하여 특별한 “효율적인 보고서”를 시행하였다(Schieb, 2006, p. 8에서 재인용). Schieb(2006)는 재정지원과 자원들, 가르치는 압도적인 부담들과 지속적이지 않은 행정적인 지지의 결핍된 결합

은 일하는 여건들, 일의 부담, 봉급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교육적인 철학을 체계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다. 아마도 이 문제는 음악 교사들과 그들의 행정을 관리하는 수장들 사이의 이상이 다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학교 관리자의 지지가 교사와 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미침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 행정가, 관리자들이 성취 위주 입시 교육을 지향하여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이 관련된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중등학교의 음악수업과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Hoffer, 2001, p. 155)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교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져 현직 음악 교사들의 전문 교육은 미국의 전국음악교육자협회(MENC)에서 전문직보증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훌륭한 인격, 인성과 함께 음악적인 능력, 교육학적인 전문 기술 등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의 전문적 교수기준을 위한 협의회 NBPTS(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2001)의 음악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식,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평가계획과 실행을 하며 음악학습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역동적인 학습환경을 만들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협력하며 전문가로서 반성하며 발전해야 한다(권덕원외, 2008, pp. 425-426에서 재인용). 음악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노래를 가르치며 학술 활동과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다(Hoffer, 2001, p. 88).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음악교육의 내용은 실기 활동, 감상태도, 음악과 심리, 음악과 사회, 악기의 제작, 음향의 원리, 음악의 기능, 음악사, 대중음악(재즈, 록, 유행가), 악곡형식, 음악이론(조성, 음계, 음열음악 등), 현대음악, 음악과 공학, 음악의 다양한 종류 및 형태 등이 포함(민경훈, 2007, p. 16)될 수 있다.

음악교사는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우며 사회적 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음악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 음악교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교사들의 전문성 신

장을 위한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학교현장의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Ⅲ. 나가면서

2007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자율화에 이어서 2011년에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교육과정이 맞물려 적용되어 일선학교의 혼란, 혼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의 적용을 등급화하여 실적을 내기 위한 무리한 추진으로 수업시수 20% 증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입시과목의 시수를 늘려 입시위주의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입시 교과 외에 인성·창의성을 키우며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음악 등의 교과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적용될 2009개정교육과정은 음악이 미술과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이면서 집중이수제의 폭과 수업시수 20%증감이 확대됨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 집중이수제로 수업시수가 적고 입시와 관련이 없는 교과는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하고 나머지 기간에 입시위주의 교과를 배울 수 있다. 교과의 수가 줄어들어서 학습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어 학습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의 전인교육이 저해될 수 있다.

음악은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으로 입시과목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목이다. 이러한 교과는 수업시수 20%증감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를 고정하여 운용하고 수업시수 증감은 국, 영, 수 등의 입시교과 안에서만 해야 한다. 또한 집중이수제는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적용해야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함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강화되기 보다는 전인 교육과 함께 성취 교과들의 취약점과 강점을 보완하여 학업 성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중이수제와 수업시수 20%증감은 입시교육을 지

향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집중이수제에 의한 수업시수 감소, 선택 교과로서 고등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으로 음악교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된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과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부 위상 약화가 우려되는 교과의 교원들에게는 부전공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접 교과의 교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과기부, 2009). 음악 교과의 입지가 작아지고 음악교사의 감소로 인하여 음악교사가 다른 교과의 부전공 연수나 복수전공의 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음악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음악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음악교육의 다양성·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음악교육전문프로그램의 연구와 지원이 요구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쌓고 창의력을 키우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 영, 수 중심의 입시 교육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음악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와 세계를 배우는 다문화 음악 교육,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민주시민교육,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국악 교육 등의 음악교육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며 교육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 교육을 소외시킨채로 성취도를 재는 경쟁 중심의 입시 교육은 학생들의 감성과 인성을 황폐하게 할 뿐이다. 21세기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학교 관리자, 교육 수요자, 교육정책가, 교육행정가 등의 인식전환과 음악교육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2009개정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1차). 2009 개정교육과정 공청회, 서울: 저자. 2010. 07. 13 검색,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803&id=808&page=1&SESSIONID=5bd724aab681ba4b3a1a0932fbdf829c>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보완 방안. 서울: 저자. 2010. 07. 13검색,
<http://www.jngyed.go.kr/board/board.php?mode=view&number=23314&tbnum=8&sCat=0&page=1&keyset=&searchword>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자율화 추진방안교육과정 관련 Q&A 자료. 서울: 저자. 2010. 07. 19 검색,
http://jinboedu.jinbo.net/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464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개정교육과정총론. 서울: 저자. 2010. 07. 13 검색,
http://www.usgbe.go.kr/board/bbs/board.php?bo_table=edu_course&wr_id=1360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개정판). (2008).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경기도교육청. (2010). 2010년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 계획. 서울: 저자
- 김선옥. (1994). 음악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성렬. (2009). 교육과정과 교원인사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의 자율화. 교육정책포럼 Vol 192, 4-7, 한국교육개발원.
- 남윤서(2010, 03, 26). 교육과정 '억지 자율화'. 2010. 07. 13 검색,
<http://news.donga.com/3/all/20100326/27111417/1>
- 조윤주(2009, 12, 18), 파이낸셜 뉴스. 2010. 07. 13 검색,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

- &arcid=091217222707&cDateYear=2009&cDateMonth=12&cDateDay=18
동아일보(2008, 02, 23). 정부 차원 사교육 실태 첫 조사. 서울: 저자. 2010.
04. 24검색,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2230138>.
- 박상주. (2001. 08. 25). 교사 '부전공 연수' 왜하나. 2010. 05. 10 검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1082501012225040002>
- 민경훈. (2007). 독일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5(1), 1-18.
- 민경훈.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
교육연구, 37, 1-33.
- 박상주. (2001. 08. 25). 교사 '부전공 연수' 왜하나. 2010. 05. 10 검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1082501012225040002>
- 소경희. (2005). 교육과정 개발: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접근. 서울: 교육과
학사.
- 신은희. (2009). 국회교육과정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미래형(2009개정)
교육과정 토론원고”. 2010. 07. 13 검색,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803&id=815&page=1>
- 신종만. (2010, 04, 19). 학교자율화 2년, 학교는 지금. 경남일보. 2010. 04. 24 검
색,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82>.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장근주. (2005). 발제 : 음악교사의 역할과 교사교육의 방향 정립. 학술대회,
2005(1), 3-14.
- 천화연. (2002). 중등 음악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음악교사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택희. (2007).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
발원.
- 최만덕. (2009).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관한 교원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7(4), 109-138.
- 최현민. (2010.03.28).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 입시위주 변질 교육과정 자

- 올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 과목만(국, 영, 수) 증감. 전북연합신문, 2010. 04. 24 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3149
- 한겨레신문. (2010. 04. 22). 초등학교 자율화도 결국 영·수만 늘렸다. 서울: 저자. 2010. 04. 24 검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43.html
- 홍수용. (2008. 02. 23). 정부 차원 사교육 실태 첫 조사. 동아일보. 2010. 04. 24 검색,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2230138>.
- 홍후조.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학년군, 교과군 개념의 교육과정적 의의 분석. 교육과정연구, 27(4), 27-40.
- 홍희경. (2009. 12. 22). 예술·체육 중점학교 내년 30여곳 지정...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신문. 2010. 07. 13 검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222011002>
- Baker, V. D. (2007).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he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support among early career secondary choral music educator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7(1), 77-91.
- Cox, G.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s talking. (1999). *Music Education Research*, 1(1), 37-46.
- Hoffer, C. R. (2001). 음악교사론. 안미자 역. 서울:이화대학교출판부. (원저 1993 출판)
- Kinnunen, U., Mauno, S., Natti, J., & Happonen, M. (2000). Organizational antecedents and outcomes of job insecurity: A longitudinal study in 3 organizations in finlan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43-459.
- Scheib, J. W. (2006). Tension in the life of the school music teacher: A conflict of ideologies.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4(2), 5-13.

ABSTRACT

Prospect on the Impact of Music Subject from the adaptation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hae, Ro-yi-a

In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hich will be applied from 2011, the reduction of music subject is expected because of a strengthened education system focusing on college entrance exams which is caused by the expansion of an intensive course completion system and 20% increase or decrease of instructional hours, music class is an elective choice subject in high school while music is integrated with fine art as a subjects cluster.

Although instructional hours per week of music are little and music is not a subject for the entrance exam, it is an important subject for students' holistic growth. Such as subject has to be managed by fixing instructional hours except for 20% increase or decrease. The intensive course completion system has to be applied suitably to trait of subject. So the Korean education would not be sunk into the education system that focuses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s.

Nevertheless, it is essential for music teachers to do constant efforts and research for saving professionalism of music education in school site as a music education specialty program for music education.

Key Words :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tensive completion system,
music education, music teacher

투고일: 9월 23일, 심사(수정): 11월 3일(11월 16일), 게재확정일: 12월 6일